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콘스탄티노스 황제와 성 엘레니 모후 사도대등자

부활 후 제4주일 / 중풍 병자 주일

성 바트리카오스 주교순교자

제3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스소스툼 성찬예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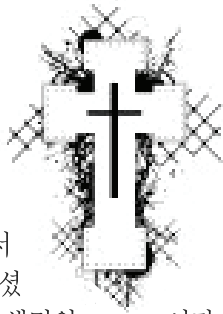
- 제1, 2, 3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9, 32-42 / 253, 봉독서 53
- 복음경 : 요한 5, 1-15 / 253, B 18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침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콘스탄티노스 황제와 성 엘레니 모후 사도대등자

우리 교회에서 5월 21일은 사도 대등자인 성 콘스탄티노스(272~337)와 성 엘레니(3세기 중반~328)의 축일입니다. 이 두 성인의 이름은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 말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승리하여 그리스도교 시대가 시작하는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는 대 콘스탄티노스라 칭하며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그리고 준 사도로 여깁니다. 그는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 형상을 보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리스도교에 자유를 주었고,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 그리스도교 변영의 큰 기초를 다졌습니다. 성 엘레니는 경건한 어머니이자 여왕이었으며 말년을 그리스도에 대한 돈독한 신앙 안에서 보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십자가를 발굴하였으며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성당 중 하나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십 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보여주셨다.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영적 세계가 과연 있을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죽음 뒤를 매우 궁금해 하며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각자 죽음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표현하며 본인들의 이론이 맞다고 주장하곤 했다.

죽음은 누구나가 모두 맞이하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굳이 외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서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없다 하며 죽음 뒤에 일을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막연히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열두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토마조차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의 말을 의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었다. 마치 모세가 수없이 기적을 보여주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믿지 않고, 그들이 머무를 안식처로 인도하여 위대한 민족으로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하느님의 축복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하고 제자들이 말하자 토마는 본인이 직접 그분을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말하였다. 그런 후 팔 일 후

에 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토마에게 못 박혔던 팔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하셨다. 그러자 토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하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하고 말씀하셨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기에 그분을 뵈는다는 표현은 사실 극히 인간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분을 뵈는다는 표현은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느껴서 그분의 실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도 그분의 본체로는 인간을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본체를 볼 수 없기에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릇된 길로만 가게 된 것이다.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신 하느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직접 알리고자 세상에 오신 것이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람됨을 인간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어 그릇된 믿음의 길로 가게 된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면을 보지 않고 영적인 면을 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느님을 찾게 되고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어 부활의 희망을 갖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환생이 아니라 부활이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나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역사는 의미가 있으며, 삶도 의미가 있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을 뜻하는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이들이 믿는 것처럼 이른바 ‘환생’이나 ‘윤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성경은 환생 또는 윤회와는 정반대로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윤회의 이론이 가르치는 대로 개나 고양이, 벌레, 박쥐로서 둘째나 셋째의 생명을 얻어 지구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부활은 새로운 몸을 얻어 영혼이 윤회한다는 가르침을 포함하지 않으며, 도리어 옛 몸이 부활하여 영광을 얻고 영혼과 몸이 영원히 다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스런 변모를 위한 토대이며, 이는 한 마리 강아지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적인 영광을 나누어 받기 위해 부활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성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1서 3,2)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봄 야유회

지난 5월 12일 주일 성찬예배 후 모든 신자들은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봄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한국 신자들과 슬라브어 사용 신자들과 또한 다른 외국인 신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준비한 식사를 하고, 재밌는 게임을 통해 서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서울 신데즈모스 회원들이 모든 준비 및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봄 야유회

오는 6월 6일(목) 현충일에 봄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장소와 시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장소 : 울산 대공원
- . 시간 : 10시 30분
- . 모이는 곳 : 울산 대공원 남문 앞
- . 준비물 : 각자 도시락과 음료수, 돗자리

돌아가신 애국지사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를 지켜주신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고 바울로 사제 추도식

지난 5월 5일 토마 주일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집전으로 고 바울로 권언건 사제 2주기 추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유족들과 많은 교인들이 참례한 추도식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고 바울로 사제의 사목 활동을 회고하며,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기원하였습니다. 고 바울로 권언건 사제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주간 예식

- 5월 21일(화) 성 콘스탄티노스 황제,
성 엘레니 모후 사도대등자 축일
 - 5월 22일(수) 오순절 중앙일
- ☞ 각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축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